

지역 소식통

김정기 부안군의원, 농업인 월급제 조례제정 간담회

김정기 부안군의원(운영위원장은)은 지난 12일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합회장 등 농어민 단체와 이성진 부안군자부 농정지원단장 등 농업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협의 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초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업인월급제 추진 건의가 있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의 간담회 개최 요구로 이뤄졌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 농민에 출하를 약정한 농민이 생산액의 일부(60~70%)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 지급 받아 생활비, 영농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5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김정기 부안군의원은 "농민 대부분이 비 수매를 하는 가을 이후에 수매가 발생해 생활비, 학자금 영농비는 연중 상시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적인 가계 지출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행복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5·18 사망 유족 위문·유공자 명패 전달**

유기상 고창군수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고창군 부안면에 거주하는 5·18사망자 유족을 찾아 전 북서부보훈처청장과 함께 명패를 부착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보훈처가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방문해 민주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계승 및 5.18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가유공자 241명의 가정에도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5·18 사망 유족 위문·유공자 명패 전달**

유기상 고창군수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고창군 부안면에 거주하는 5·18사망자 유족을 찾아 전 북서부보훈처청장과 함께 명패를 부착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보훈처가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등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방문해 민주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계승 및 5.18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국가유공자 241명의 가정에도 명패 달아드리기를 실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

전북 유일 선정 · 국비 2억원 확보 · 만18~34세 청년대상 상담 ·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정읍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2021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서 전라북도 내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는 국비 2억원과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며,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 도전을 돕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모집해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취·창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 단념 청년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프로그램 참가 청년 250명 발굴을 목표로 청년 지원센터 청정지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20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회생활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유진섭 시장은 "청년들과 1:1 밀착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이 5월 무료영화 상영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미나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 “영화 미나리 무료 관람하세요”

부안군, 윤여정 오스카상 영예 영화... 예술회관 공연장서 21일 상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5월 무료영화 상영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미나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미나리'는 정이삭 감독 작품으로 지난 3월 개봉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 1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우수작으로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손꼽히는 흥행작품 중 하나이다.

주요 출연배우는 스티븐 연, 한여리, 윤여정, 앨런 S. 김, 노엘 조 등이다.

이중 배우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재치 있는 수상소감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화 '미나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온 한인가정이 농장경

영의 큰 꿈을 갖고 아칸소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된다.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 분)'은 자신했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여리 분)'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 분)'가 함께 살기로 하면서 미국 이민가정이 정착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영화 상영의 날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지만 이번 달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정으로 부득이 하루 늦춘 21일 금요일에 상영하게 됐다"며 "신착순 입장이고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부안군민만 입장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달고 맛있는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 만나보세요

6월말까지 본격 출하 · 당도 13브릭스(Brix) 이상 업선... 설탕의 200배 당도 · 칼로리는 1%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수박이 본격 출하됐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름철 대표 과일인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본격 출하된다.

올해 고창수박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출하돼 코로나19와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지친 전국 소비자들의 심신을 달래줄 전망이다.

고창 '스테비아 수박'은 국화와 다년생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수박으로 자리매



산면 등에서 875농가가 965ha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들은 매일 회의와 기술교육을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해 수박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임재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현장기술 실증연구과제를 추진

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달고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지역자활센터, '월면가 쌀국수' 자활사업단 개업

정읍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등 자활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다.

시아 정읍지역자활센터는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술 습득을 통한 취업 발판 마련을 위해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활사업 아이템 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에 아파트단지와 다세대 주택 등 주

거지역이 발달하고 인구 비율이 높은 상동 지역에 외식 사업이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 월면가 쌀국수 개소를 추진했다.

시아 사업에 참여한 자활근로자 6명을 모집해 전문 조리장을 통한 기술 습득과 운영노하우 등의 교육을 마치고 13일부터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월면가 쌀국수 사업단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베트남 쌀국수를 매장 판매뿐 아니라 향후 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수외

창출을 꾀할 예정이다.

월면가 쌀국수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는 모두 0명이다.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구성됐다.

시아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자립·자립을 위한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트로트 신동 김태연, 정읍시 홍보대사 위촉식

정읍시가 지난 12일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을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아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재능이 출중한 김태연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고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연 양은 일전에 '국악 신동'으로 각종 춘향국악대전과 판소리 대회를 휩쓸었고 특히, 최근에는 인기리에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은 형님'과 '대한 외곡인'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예능 천재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

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이동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능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를 겸비한 방송인으로 화두가 되기도 했다.

김태연 양은 앞으로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 홍보를 위한 행사 등에 참여하며 정읍의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태연 양은 이날 위촉식에서 "정읍은 저에게 의미있는 곳이다"면서 "정읍시 홍보대사로서 불거리, 먹거리 등 정읍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스타를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정읍시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